

‘V-는다’, ‘V-었다’, ‘V-겠다’의 意味

—時制範疇와 관련하여—

李 庸 周

(國語教育科)

I.

한 언어의 記述은 의미⁽¹⁾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형식과의 대응 관계에 입각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²⁾ 어떤 사물을 대표하는 기호로서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떤 의미를 표현⁽³⁾하기 위하여 어떤 언어형식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언어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기호가 어떤 사물을 지시하도록 습관화되어 있으며 어떤 언어형식이 어떤 의미를 표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기술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호는 특정 사물의 대표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호와, 기호가 대표하는 사물과의 관계는 숙명처럼 맺어진 것이다.⁽⁴⁾ ‘닭’과 ‘꿩’이라는 語는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각각 현재 우리가 구별하고 있는 것과

- (1)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概念的 意味, 知的 意味라 해도 무방하겠으나 여기서는 특히 指示的 意味(referential meaning)라고 하겠다. 언어의 지시적 의미는, 대체로 언어형식이 특정 사물을 지시하는 ‘作用’이라고 규정하는데, 필자는 ‘화자가 특정한 視角에서 본(또는 파악한, 인지한) 사물(또는 대상)’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A가 B를 때렸다’와 ‘B는 A에게 맞았다’는 하나의 사건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 이 두 발화의 指示的인 의미는 같지 않다.
- (2) 註(1)에서의 ‘B가 A에게 맞았다’는 그 사건을 B를 중심으로 해서 被動이라는 각도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 被動은 ‘B는 A에게 맞았다’의 指示的 意味의 고유의 속성이다. ‘철수의 발이 영희에게 밟혔다.’의 指示的 意味 또한 被動이라는 고유의 속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被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전자의 경우는 ‘맞았다’를 사용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밟-’에 被動化의 接尾辭 ‘-히-’를 연결해서 被動詞化한 ‘밟히었다’를 사용하였다. 이 두 동사가 표현하는 의미는 모두 被動이나 전자는 피동을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은, 能動詞 형식인 ‘맞다’에 의해서 표현되었고 후자는 형식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밟-히-었다’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필자는 이 兩者를 모두 被動을 표현하는 언어형식(동사)이라는 관점을 택한다. 그러므로 ‘맞다’와 ‘밟히다’는 모두 被動(을 표현하는 動)詞로 간주한다. 차이가 있다면 ‘맞다’는 본디부터 被動을 표현·지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동사이고 ‘밟다’는 본디 능동을 표현하는 동사인데 피동을 표현하는 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밟-’에 ‘-히-’를 접미하여 被動詞化된 派生 被動詞라는 점이다. 전자를 能動形式의 被動詞, 固有의 被動詞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 형식적인 특징이야 어떻든 그것이 표현하는 意味가 被動이면 ‘被動—被動表現(詞, 文)’의 대응 관계에서 기술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3) 언어형식은 그것이 대표하는 사물(대상)을 指示한다고 하고,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는 용어법을 따른 것이다.
- (4)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나름으로 새로 습관화 제도화되는 것이다. 새로운 운명이 정해진다.

같은 특정한 동물을 지시하는 기호로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뒤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언어 형식에는 사물을 지시하는 것과 화자의 心的 態度를 표현하는 것이 있다.⁽⁵⁾ 이러한 두 가지 형식이 적절히 배합되고 배열됨으로써 사람들끼리의 의사 소통을 위한 표현과 전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형식과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또는 언어형식과 그것이 표현하는 의미와의 관계는 일단 정립이 되면 그것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도 함부로 변용될 수 없다.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표현하는 의미를 배제하면 언어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경우 이들 양자의 상호 관계, 대응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⁶⁾

필자는 3회(1983, 1984¹, 1984²)에 걸쳐 7群의 동사를 대상으로 그 ‘V-는다, V-었다, V-겠다’ 활용형이 각종 時間詞⁽⁸⁾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동작·과정·상태 등이 과거·현재·미래의 어느 시간권에 속하는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⁷⁾

II.

瞬時完結動作動詞의 ‘V-는다’ 형은 현재지시의 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후의 동작을 지시한다.

(1) 철수는 지금 출발한다.

(1)은 현재 진행중인 출발을 지시하지 않는다. 아직 출발전이다.⁽⁹⁾ 이러한 현상은 언어형식의 특성이 아니라 出發이라는 동작 자체의 속성인 瞬時完結 때문이다. 그러므로 (1')와 같이 말한다 해도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은 발화시 이후의 것이다.

-
- (5) 언어 그 자체가 본디부터 人間外的인 사물이나 인간의 심리 현상을 지시하고 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6) 언어학의 기본은 현실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실용되는 언어현상, 언어의 의미·용법에 입각해서 그것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7) ‘V-는다’ ‘V-었다’ ‘V-겠다’ 그리고 ‘V-는/-(으)ㄴ/-(으)ㄹ’ 등 4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관형형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종결어미 세가지 경우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상기 조사의 내용은 제목이 보여 주는 그대로 過去, 現在, 未來의 時間圈의 문제에 국한하였었다. 용어에 있어서도 가급적 언어학의 용어를 피했었고, 그들 어미의 의미에 언급하는 일도 배제하였었다. 이들 조사 결과, 如斯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동사를 3群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둔하다는 것을 알았다.
- (8) 시간을 지시하는 語詞들이 어떤 어휘범주에 소속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時間詞라는 말을 써본다. 특정한 品詞와 무관하다.
- (9) ‘지금’을 ‘오늘’로 교체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철수는 오늘 출발한다.’가 발화시 이후의 오늘 출발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화자는 철수가 오늘 출발할 예정임을 알고 있을 뿐 그 정확한 시간을 모르고 있다면, 이미 오전중에 철수가 출발했더라도 그것을 모르는 화자는 午後에라도 이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1') 철수는 지금 출발하고 있다.

‘가다, 먹다’와 같은 持續未完結이라는 속성을 가진 동사의 ‘지금 …-고 있다’가 발화시 현재 진행중인 동작을 지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瞬時完結動作動詞의 ‘V-는다’ 형이 과거의 時間詞와 함께 쓰인 (2)는 a와 b가 모두 不適格이다.

- (2) a. *철수는 아까 출발한다.
- b. *철수는 어제 출발한다.

瞬時完結動作動詞의 ‘V-는다’ 형은 (3)과 같이 미래지시의 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을 지시한다.

- (3) a. 철수는 곧 출발한다.
- b. 철수는 내일 출발한다.

‘곧’은 발화시에 아주 가까운 시간이고 ‘내일’은 오늘이 지난 뒤의 24시간 동안이지만 a, b 모두가 발화시 이후의 ‘출발’을 지시하는 점에서는 같다.

瞬時完結動作動詞의 ‘V-었다’ 형은 현재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전에 끝난 동작을 지시한다.

(4) 나는 지금 도착하였다.

(4)가 지시하는 도착은 발화시 이전의 것이며 발화시 현재 진행중인 것일 수 없다. 이것 또한 동작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다. ‘지금’이 ‘오늘’로 대체된 (4')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 나는 오늘 도착하였다.

(4')가 지시하는 도착의 시간은 한 순간일 뿐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진행중인 동작이 아니다.

瞬時完結動作動詞의 ‘V-었다’ 형이 과거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끝난 동작을 지시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 (5) a. 나는 아까 도착하였다.
- b. 철수는 어제 도착하였다.

瞬時完結動作動詞의 ‘V-었다’ 형은 미래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적격문을 이루지 않는다. (6)은 부적격이다.

(6) *철수는 이따가 도착하였다.

瞬時完結動作動詞의 ‘V-겠다’ 형은 현재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후의 동작을 지시한다.

(7) 나는 지금 출발하겠다.

瞬時完結動作動詞의 ‘V-겠다’ 형이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8)은 부적격이다.

(8) *철수는 아까 출발하겠다.

瞬時完結動作動詞의 ‘V-겠다’ 형은 미래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을 지시한다.

(9) 나는 이따가 출발하겠다.

Ⅲ.

持續未完結(이 속성인) 動詞⁽¹⁰⁾의 ‘V-는다’ 형이 현재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10)이 지시하는 대상은 발화시 현재 진행중인 동작·과정이며 현재 지속중인 상태다.

- (10) a. 철수는 지금 영희네 집에서 공부한다.
 b. 바람, 지금 리트마스지가 변색한다.
 c. 그 구슬은 지금도 반짝반짝한다.

a는 현재 지속중인 동작이고 b는 과정이며 c는 상태다. 모두 발화시 현재 지속중인 것이 지시대상이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상당히 긴 시간대를 지시하는 어사와 함께 쓰이면 (10')와 같이 발화시 이후의 동작·과정·상태일 수도 있다.

- (10') a. 철수는 오늘 (날이 밝으면) 영희네 집에서 모를 심는다.
 b. (두고) 보아라. 오늘 실험에서도 리트마스지는 변색한다.
 c. (두고) 보아라. 그 구슬은 오늘도 반짝반짝한다.

a는 동작 b는 과정 c는 상태가 지시의 대상이다. 괄호 안 부분을 제외하면 a, b, c는 모두 시간사가 지시하는 ‘오늘’ 현재 지속중인 동작·과정·상태일 수 있으며 괄호 부분을 살리면 이들 동작·과정·상태는 발화시 이후의 것이 지시대상이다.

持續未完結의 動詞 ‘V-는다’ 형이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11)은 모두 부적격이다.

- (11) a. *철수는 아까 영희네 집에서 공부한다.

(10) 이에는 持續未完結動作動詞와 過程動詞 그리고 狀態動詞가 일부 포함된다. 略稱하여 持續未完結動詞라 한다.

- b. *리트마스지는 아까 변색한다.
- c. *구슬은 아까도 반짝반짝한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는다' 형이 미래 지시의 '이따가'와 함께 쓰인 (12)는 발화시 이후의 동작·과정·상태를 지시한다.

- (12) a. 철수는 이따가 영희네 집에 간다.
 b. 이따가 보아라. 틀림없이 변색한다.
 c. 이따가 해튼 다음에 보면 구슬은 반짝반짝한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었다' 형이 현재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13)은 발화시 이전에 끝난 것으로 파악한 동작·과정·상태를 지시한다.

- (13) a. 철수는 지금 영희네 집에서 공부하였다.
 b. 리트마스지는 지금 변색했다.
 c. 불빛이 지금 째짝거리었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었다' 형이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14)는 모두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과정·상태 등을 지시한다.

- (14) a. 철수는 아까 영희네 집에서 놀았다.
 b. 아까 많은 꽃이 피었다.
 c. 아까는 별이 유난히도 빛났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었다' 형이 미래 지시의 '이따가'와 함께 쓰인 (15)는 모두 부정적이다.

- (15) a. *철수는 이따가 영희네 집에서 놀았다.
 b. *이따가 보아라, 많은 꽃이 피었다.
 c. *이따가 별이 빛났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겠다' 형이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인 (16)은 모두 발화시 현재의 동작·과정·상태를 지시한다.

- (16) a. 철수는 지금 저의 집에서 공부하겠다.
 b. 화초는 지금도 잘 자라겠다.
 c. 지금도 하늘에서는 별들이 빛나겠다.

그러나 (16')의 a~c는 발화시 현재의 동작·과정·상태일 수도 있고 발화시 이후의 동작·과정·상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d와 같이 主語가 1人稱일 때는 'V-겠다'가 意志 決心 등의 표현이고 지시 대상인 동작은 발화시 이후의 것이다.

- (16') a. 철수는 오늘 집에서 공부하겠다.

- b. (어제도 물을 많이 주었으니) 화초들은 오늘도 많이 자라겠지.
- c. 오늘밤에도 하늘에서는 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겠지.
- d. 나는 오늘(지금)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겠다' 형이 과거 지시의 '아까'와 함께 쓰인 (17)은 모두 부적격이다.

- (17) a. *칠수는 아까 술을 마시겠다.
- b. *고추는 어제도 붉겠다.
- c. *어제밤에도 별은 빛나겠다.

持續未完結動詞의 'V-겠다' 형이 미래 지시의 '이따가'와 함께 쓰인 (18)은 모두 발화시 이후의 동작·과정·상태를 지시한다.

- (18) a. 칠수는 이따가도 학교에서 공부하겠다.
- b. 이따가는 기온이 많이 높아지겠다.
- c. 이따가는 별빛이 더욱 빛나겠다.

IV.

缺如狀態를 지시하는 동사 '결석하다'의 'V-는다' 형이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인 (19)의 응답 부분은 부적격이다.

- (19) 칠수 지금 교실에 있니?
*칠수는 지금 결석한다.

'지금'을 '오늘'로 교체한 (19')도 (19)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는 부적격이지만 아직 등교시간이 되지 않은 이른 아침에 오늘 결석할 것임을 말하는 발화로서는 적격이다.

- (19') 칠수는 오늘 결석한다.

즉 '오늘 결석한다'는 발화시 이후의 결여 상태를 지시한다.

缺如動詞 '결석하다'의 'V-는다' 형이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20)은 부적격이다.

- (20) *칠수는 어제 결석한다.

缺如動詞 '결석하다'의 'V-는다' 형이 미래 지시의 시간사와 쓰이면 (21)과 같이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미래에 있어서의 '결석'을 지시한다.

- (21) 칠수는 내일 결석한다.

缺如動詞 '결석하다'의 'V-었다'형이 현재 지시의 '오늘'⁽¹¹⁾과 함께 쓰인 (22)는 발화시 현재 결여 상태에 있음을 지시한다.

(22) (오늘은 등교해야 할 날인데) 철수는 오늘 결석했다.

이것은 (19)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나 하교 시간이 지난 다음의 발화로 적격이다.

'결석하다'의 'V-었다'가 과거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인 (23)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간사가 지시하는 과거에 있어서의 결석을 지시한다.

(23) 철수는 어제 결석했다.

'결석하다'의 'V-었다'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쓰인 (24)는 부적격이다.

(24) *철수는 내일 결석했다.

缺如動詞 '결석하다'의 'V-겠다'형이 현재 지시의 '오늘'과 함께 쓰인 (25)는 오늘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학교에 있지 않을 것임을 지시한다.

(25) 나는 오늘 결석하겠다.

'결석하다'의 'V-겠다'형이 과거 지시의 '어제'와 함께 쓰인 (26)은 부적격이다.

(26) *나는 어제 결석하겠다.

'결석하다'의 'V-겠다'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쓰인 (27)은 시간사가 지시하는 내일의 결석을 지시한다.

(27) 나는 내일 결석하겠다.

所有·所持의 의미인 동사 '가지다' '갖다'도 결여 동사의 경우와 비슷하다.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인 (28)이 현재 소지하고 있음을 지시하는 발화로는 부적격이다.

(28) 너 지금 돈 얼마 가지니?
나 지금 천원 갖는다.

그러나 이것도 (28')와 같은 의미로 쓰이면 적격이다.

(28') 너 지금 얼마나 집어 넣고 있(고 있)니?
나 천원 집어 넣고 있다(넣는다).

(11) 학교에서의 出席과 缺席은 '하루'가 단위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으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학교에 있고 없음에 의해서 구별된다.

‘가지다’의 ‘V-는다’ 형이 과거 지시의 ‘어제’와 함께 쓰인 (29)는 부적격이다.

(29) *철수는 어제 천원가진 (갖는)다.

‘가지다’의 ‘V-는다’ 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쓰인 (30)은 미래에 있어서의 소지를 지시하지 않고 소유화, 취득 등의 행위를 지시한다.

(30) 나 내일 천원가진 (갖는)다.

‘가지다’의 ‘V-었다’ 형이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인 (31)은 발화시 현재의 소유를 지시한다.

(31) 너 지금 돈 얼마 가졌니?
나 지금 천원 가졌다.

이들이 발화시 이전에 끝난 소유화나 취득행위를 지시하는 발화가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가지다’의 ‘V-었다’ 형이 과거 지시의 ‘아까’와 함께 쓰인 (32)는 그 시간대에 있어서의 소유화나 취득행위가 끝났음을 지시한다.

(32) 철수는 아까 천원 가졌다.

(32)는 (32')와 같은 의미의 발화가 아니다.

(32') 철수는 아까 천원 가지고 있었다.

‘가지다’의 ‘V-었다’ 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쓰인 (33)은 부적격이다.⁽¹²⁾

(33) *철수는 내일 천원 가졌다.

‘가지다’의 ‘V-겠다’ 형이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인 (34)는 발화시 직후에 천원을 자기 소유로 하겠다는 의미의 발화다.

(34) 나 지금 천원 가지겠다.

‘가지다’의 ‘V-겠다’ 형이 과거 지시의 ‘아까’와 함께 쓰인 (35)는 부적격이다.

(12) ‘V-었다’ 형의 특이한 용법이 있다.

a. 폭우가 쏟아지니 오늘(내일) 뉘시는 다 갔다.
b. 또 철수 욕을 했으니 화해하기는 다 틀렸다.
c. 그렇게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으니 너 내일은 죽었다.

a~c 모두 분명히 발화시 이후의 사건이 지시의 대상이다. a b는 ‘다+V-었다’의 형식이고 c는 ‘V-었다’의 형식이다. 미래를 지시하는 時間詞는 있어도 없어도 관계 없다.

(35) *나 아까 천원 가지겠다.

‘가지다’의 ‘V-었다’형이 미래 지시의 ‘내일’과 함께 쓰인 (36)은 미래에 있어서의 소
유화, 취득 행위를 지시한다.

(36) 나는 내일 천원을 가지겠다.

V.

지금까지 동사의 ‘V-는다, V-었다, V-겠다’ 활용형이 지시하는 대상이 發話時, 發話時
以前, 發話時 以後의 어느 時間圈에 속하는가를 過去 現在 未來 지시의 각 時間詞와의 관
련에서 고찰하였다. 그것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군	활용형과 시간사		‘V-는다’ 指示對象의 時間圈	‘V-었다’ 指示對象의 時間圈	‘V-겠다’ 指示對象의 時間圈
	I	現在	지금	發話時 以後	發話時 以前
		오늘	發話時 以後의 今日	發話時 以前の 今日	發話時 以後의 今日
	過去		＊	過去	＊
	未來		未 來	＊	未 來
II	現在	지금	發話時 現在持續	發話時 以前	(1人稱) 發話時 以後 (2·3人稱) 發話時 現在 持續
		오늘	發話時 現在 持續 發話時 以後의 今日	發話時 以前の 今日	(1人稱) 發話時 以後 (2·3人稱) 發話時 現在 持續이거나 以後
	過去		＊	過去	＊
	未來		未 來	＊	未 來
III	現在	지금	發話時 以後	(결석하였다) 發話時 現 在 缺如 (기차가섰다) 發話時 以 前 完了	發話時 以後
		오늘	發話時 以後	(결석하였다) 發話時 現 在 缺如	發話時 以後의 今日
	過去		＊	過去	＊
	未來		未 來	＊	未 來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V-는다/-ㄴ다

① a. I·III群 동사의 'V-는다' 형이 現在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動作이나 缺如狀態 등은 發話時 以後의 것이다. 다만 '오늘'과 같이 시간사가 지시하는 時間帶가 긴 경우에는 그 지시대상은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發話時 以後의 것이다. 이들은 모두 決코 發話時 現在 進行中인 것이 아니다.

b. II群 동사의 'V-는다' 형이 현재시간사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動作 過程 狀態 등은 發話時 現在 持續中인 것이다. 다만 '오늘'과 같이 긴 시간대를 지시하는 시간사와 함께 쓰이면 그 指示對象은 發話時 現在 持續中인 것일 수도 있고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發話時 以後의 것일 수도 있다.

② I·II·III群 동사 모두 'V-는다' 형이 過去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適格文을 만들지 않는다.

③ I·II·III群 동사 모두 'V-는다' 형이 未來時間詞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未來(물론 發話時 以後)에 있어서의 동작 과정 상태 등을 지시한다.

B. V-었다/-았다

① a. I·II群 동사의 'V-었다' 형이 現在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동작 과정 상태는 發話時 以前의 것이다. 다만 시간대가 긴 '오늘'과 함께 쓰이면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發話時 以前의 '오늘'이다.

b. III群 동사의 'V-었다' 형이 現在時間詞와 함께 쓰이면 이들이 지시하는 缺如狀態나 所持(有)關係 등은 發話時 現在 持續中인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發話時 以前에 缺如狀態에 이르렀음과 所持關係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所有化, 取得의 完了가 지시대상이 되기도 한다.

② I·II·III群 모두의 'V-었다' 형이 過去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대상은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물론 發話時 以前)의 동작 과정 상태다.

③ I·II·III群 동사 모두의 'V-었다' 형은 未來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適格文을 만들지 않는다.

C. V-겠다

① a. I·III群 동사의 'V-겠다' 형이 現在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대상은 발화시 이후의 동작 과정 상태다. 다만 '오늘'과 함께 쓰였을 때는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發話時 以後다.

b. II群 동사의 'V-었다' 형이 '지금'과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대상은 主語가 1人稱의 경우는 發話時 以後의 것이 대상이고 2·3人稱의 경우는 發話時 現在 持續中인 것이다.

‘오늘’과 함께 쓰인 ‘V-겠다’가 지시하는 대상은 主語가 1人稱의 경우 發話時 以後의 것이고 2·3人稱의 경우는 發話時 現在 持續中이거나 發話時 以後의 것이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

② I·II·III群 동사 모두의 ‘V-겠다’형은 過去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適格文을 이루지 못한다.

③ I·II·III群 동사 모두의 ‘V-겠다’형이 未來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지시하는 대상은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물론 發話時 以後)에 있어서의 동작 과정 상태 등이다.

VI.

전통적으로 한국어의 ‘V-는다, V-었다, V-겠다’ 등 활용형은 時制라는 문법범주와의 관련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한국어에서 시제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정되는 일이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時間詞와 함께 文 속에 쓰인 ‘V-는다, V-었다, V-겠다’형의 지시 작용을 기반으로 시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時制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밝혀 둔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듯이 時制는 動詞(句)의 文法範疇의 하나로 본다.

특정 언어에서 동사가 지시하는 동작·과정·상태 등이 發話時를 기준으로 하여 過去(發話時 以前) (發話時) 現在, 未來(發話時 以後)의 어느 時間圈에 속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특별한 (動詞의) 活用形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각각 過去形, 現在形, 未來形이라 하고 이 세 가지 活用形 중에서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면 그 언어에는 動詞에 時制라는 文法範疇가 있다고 하는 관점을 취한다.

1. V-었다/-았다

‘V-었다’형은 흔히 過去時制로 설명되기도 하고 完了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現在時間詞와 함께 쓰이기도 하고 過去時間詞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다만 ‘未來時間詞+V-었다’가 적격문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 (37) a. 철수는 어제 출발했다.
- b. 영희는 어제 집에서 공부하였다.

(13) 1人稱 主語의 경우 화자의 意圖나 決心 같은 것이 표현되고 2·3人稱 主語의 경우는 話者의 推測이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37)의 a, b 단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어제’와 ‘V-었다’가 어울려서 ‘昨日’이라는 과거에 있어서의 대상을 지시하므로 ‘V-었다’를 과거형으로 인정하고 過去時制를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現在時間詞와 어울려 쓰인 (38)의 a, b를 고려하면 그렇게 단순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 (38) a. 철수는 지금 출발했다.
b. 철수는 오늘 출발했다.

a는 發話時 현재인 ‘지금’ 출발이 끝났음을 지시하는 것이며 발화시 현재의 지속중인 동작이 아니다. ‘출발’ 그 자체는 발화시 이전에 속하는 것이다. b의 경우는 발화시 이전의 오늘 출발했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정확한 시간은 없다. 발화시가 오전이나 오후나, 또 몇시나에 따라 ‘발화시 이전의 오늘’이라는 그 시간대의 길이는 달라진다.

‘(…)未來時間詞(…)+V-었다’와 같은 적격문이 없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기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V-었다’ 형이 現在時間詞와도 過去時間詞와도 함께 쓰여서 발화시 이전의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특정 시간권에 소속됨을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 보인 (37) (38)의 발화에서 공통되는 기능을 찾는다면, 그것은 時間詞가 現在指示의 것이든 過去指示의 것이든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完了’가 아닌가 한다. 完了라는 것은 발화시 이전일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미래 지시의 시간사와 함께 쓰이지는 않는다.

다음 (39)~(42)의 예문들을 보면 ‘V-었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동작이 過去 現在 未來의 어느 시간권에 속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 (39) a.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가다가 왔다.
b.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갔다가 왔다.
(40) a.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가다가 왔다.
b.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갔다가 왔다.
(41) a.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가다가 왔다.
b.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가 왔다.
(42) a. 철수야 내일은 학교에 가다가 (도중에서) 되돌아 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b. 철수야 내일은 학교에 갔다가 오너라.

(39)는 발화시 현재인 ‘지금’, (40)은 발화시가 속해 있는 24시간대를 지시하는 ‘오늘’, (41)은 발화시가 속해 있는 ‘오늘’보다 하루 전(過去)인 ‘어제’, 그리고 (42)는 하루 뒤(未來)인 ‘내일’이라는 여러 가지 시간권을 지시하는 時間詞가 ‘V-었다’ 형과 함께 쓰인 발화들이다.

여기서 ‘가다가’와 ‘갔다가’가 보이는 공통된 차이는 학교에 가다가 도중에서 되돌아온

것이나 목적지인 학교까지 다 갔다가 온 것이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물론, 이른바 絕對時制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만 相對時制라는 관점에서 적절히 설명될 수 없다.⁽¹⁴⁾

요컨대 (39)~(42)의 발화에서 ‘V-었다’ 형은 過去 現在 未來라고 하는 時間圈表示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沈時는 無時다.

(43)과 같은 缺如動詞 ‘결석하다’나 ‘잇다’ 그리고 所持關係의 ‘가지다’와 같은 동사에 있어서는 현재의 缺如狀態나 所持關係를 지시하거나 표현하기 위하여 ‘V-는다’ 형이 쓰이지 않고 ‘V-었다’ 형이 (현재시간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준다.

- (43) a. 칠수 지금 학교에 있니?
 칠수 오늘 결석했다.
- b. 오늘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나는 깜빡 잊었다.
- c. 너 지금 돈 얼마나 가졌지?
 지금 천원 가졌다.

이런 ‘V-었다’는 過去로 설명하기보다는 完了로 설명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2. V-는다/-ㄴ다

이것은 대체로 現在時制와의 관련에서 논의되어 왔고 근래에 와서 시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¹⁵⁾ 그런데 이미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V-는다’ 형은 어떤 동사의 경우에도 過去時間詞와는 함께 쓰여서 적격문을 이루지 않으며 I·II·III群 모든 동사의 ‘V-는다’ 형이 未來時間詞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未來)에 있어서의 동작 과정 상태 등을 지시한다. 다만 II群의 동사 즉 持續未完結의 動作, 過程, 狀態 등을 지시하는 동사들의 ‘V-는다’ 형이 현재 지시의 ‘지금’과 함께 쓰여서 發話時現在 持續中인 대상을 지시한다. 그리고 ‘오늘’과 함께 쓰였을 때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발화시 현재 지속중인 것일 수도 있고 발화시 이후의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V-는다’는 발화시 현재 지속중인 동작 과정 상태보다는 發話時 以後의 동작 과정 상태등을 지시하는 기능이 절대 우월하다. 이런 형편으로 보아 ‘V-는다’ 형을 現在進

(14) ‘가다가 왔다’와 ‘갔다가 왔다’를 비교할 때 ‘왔다’를 기준으로 해서 ‘가다가’를 현재라고 하고 ‘갔다가’를 과거라고 하여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다가 왔다’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그 도중에서 되돌아 왔다는 것이고 ‘갔다가 왔다’는 목적지까지 간 뒤에 다시 되돌아 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가다가’나 ‘갔다가’나 ‘가는’ 행동은 모두 ‘왔다’가 지시하는 행동보다 앞선 것이다. 그런데도 ‘가다’가 쓰였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학교에 가다가 영희를 만났다’와 같은 경우는 ‘가다가’를 ‘만났다’가 지시하는 과거를 기준으로 한 現在라고 하여 相對時制로 설명할 수 있다.

(15) 특히 南基心(1978)을 참조하라.

行(또는 持續)中인 동작 과정 상태를 지시하거나 표현하는 文法範疇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 이것은 ‘完了’와 대립되는 非完了인 動作, 過程, 狀態등에 대한 話者의 事實 如否의 判斷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V-겠다

이것은 未來時制와의 關係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時制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I·II·III群 모든 동사에서 ‘過去時間詞(…)+V-겠다’로 적격문을 만들지 않으며 現在와 未來의 時間詞와 함께 쓰여서 發話時 以後, 時間詞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 과정 상태 등이 지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II群(持續未完結動作, 過程 狀態등) 동사의 ‘V-겠다’형이 ‘지금’과 함께 쓰이면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화시 이후 또는 현재의 동작등이 지시의 대상이 되고 人稱에 따라 話者의 意圖 決心 또는 推測을 표현한다.

- (44) a. 나는 지금 밥을 먹겠다.
 b. (전화로)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하겠다.
 c. 철수는 지금 공부하겠다.

a는 主語가 화자 자신인 1人稱인데 이때 ‘V-겠다’는 화자의 意志 決心 등을 나타내며 그 동작은 당연히 발화시 이후에 속한다. 발화시 현재의 진행이나 지속이 아니다.⁽¹⁶⁾ 그러나 b, c는 각각 2·3人稱 主語인데 이때는 화자의 추측이며 現在 지속되고 있는 ‘공부’가 지시 대상이 된다.

그리고 II群 동사의 ‘V-겠다’형이 ‘오늘’과 함께 쓰일 때도 主語의 人稱에 따라 (45)와 같이 달라진다.

- (45) a. 나도 오늘은 공부하겠다.
 b. (전화로) 너도 오늘은 공부하겠다.
 c. 철수도 오늘은 공부하겠다.

主語가 1人稱인 a는 화자 자신의 意圖 決心이며 그 동작은 ‘發話時 以後의 ‘오늘’이고 2·3人稱인 b, c는 모두 화자의 推測이며 發話時 以後나 現在 持續中인 동작 모두가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V-겠다’는 (46)과 같이 ‘過去時間詞+V-았-겠다’와 같은 형식으로 쓰이는데 이때의 지시대상은 물론 그 시간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동작이다.

- (46) 철수는 어제 (아까) 재미있게 놀았겠다.

(16) 이런 발화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지금’을 ‘지금부터’라고 바꾸면 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

이와 같이 과거에 있어서의 동작을 지시하는 현상은 'V-겠다'를 未來時制로 볼 수 없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VII.

이상을 종합하여 임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

① 한국어 동사는 時制範疇를 가지지 않는다.

② 動詞의 語幹은 對象을 指示하고⁽¹⁷⁾ '-었(다), -는(다), -겠다'는 각각 다음과 같은 話者의 心的 態度를 表現한다.

a. '-었(다)'는 동작·과정·상태 등을 '完了'로 인정한 化者의 表象을 表現한다. 이것은 化者의 主觀의 문제다.⁽¹⁸⁾

b. '-는(다)'는 동작·과정·상태 등에 대한 化者의 事實判斷을 表現하는 것이다. 단 非完了에 한한다.⁽¹⁹⁾

c. '-겠다'는 1人稱 主語일 때 化者의 意圖 決心 등을 表現하고 2·3人稱 主語일 때 化者의 推測을 表現한다.

③ 한국어에서, 동작·과정·상태 등이 속하는 時間圈은 時間詞에 의해서 표시된다.⁽²⁰⁾ 동사는 그것이 지시하는 對象이 어느 時間圈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무관하다.⁽²¹⁾

參 考 文 獻

高永根. (1965). "現代國語의 敍法體系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15.

_____. (1966). "現代國語의 直說法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31.

_____. (1967). "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特히 排列의 차례를 中心

(17) 이 때의 '對象'은 '사람, 소...'와 같은 名詞가 대표하는 사물과 '먹다, 자다...'와 같은 동사가 대표하는 동작 상태는 물론이고, '사랑, 미움, 기억...' 등 名詞와 '사랑하다, 미워하다, 기억하다...' 등 동사가 대표하는 사람의 心理現象 모두를 포함하며 사람의 創作的 想像에 의한 心像(龍, 지옥, 천당 등)까지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18) 친구끼리 전화를 걸고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또는 '너 지금 뭐 했니?'와 같이 여러가지로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답도 '나 지금 공부한다.' '나 지금 공부하고 있다.' '나 지금 공부했다.'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건도 그것을 發話時를 기준으로 하고 完了라는 관점에서 表現하느냐 非完了라는 관점에서 表現하느냐는 전적으로 話者에게 달려 있다. 그것은 化者의 主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부했다'라는 대답이 반드시 발화 이후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19) 非完了가 반드시 현재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는다'는 현재와 미래의 동작·과정·상태를 지시하거나 表現하는 데 모두 쓰이며 오히려 미래에 속하는 대상을 지시하거나 表現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20) 이런 것도 時制라고 보는 처지라면 한국에서도 動詞와는 관계 없이 時制範疇는 있는 셈이다.

(21) 이 小攷는 극히 초보적인 試圖에 불과하다. 同學 諸賢의 敎示를 바란다.

- 으로—”, 「語學研究」, 3-1.
- _____. (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10-1.
- 金敏洙. (1971). 「國語文法論」, 一潮閣.
- 金相大. (1976). “國語時制表示의 特徵”, 「국어교육」, 26.
- 金錫得. (1974). “한국어의 시상”, 「한글연구」, 1, 연세대학교 한글 연구소.
- 김차균. (1980¹).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 _____. (1980²). “국어 시제의 기본적 의미”, 池憲英 先生 古稀紀念論叢.
- 羅鎮錫. (1972).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 南基心. (1973). 「國語完形補文法研究」. 啓明大學 韓國學研究所.
- _____. (1978). 「國語文法の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塔出版社(1972,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1975. 이론바 國語時制의 基準時點 問題에 對하여 등 6編의 論文).
- 노대규. (1979). “상황소(deixis)와 한국어의 시제”, 「문법연구」, 4, 문법연구회.
- 서정수. (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문법연구」, 3.
- _____. (1978). 「국어구문론 연구」. 탑출판사.
- 이기용. (1975). “時相에 關한 意味公準의 設定”, 「語學研究」, 11~2.
- _____. (1976). “時間論: “지금”의 意味”, 「語學研究」, 12~2.
- _____. (1980). “몬태규 문법에 입각한 한국어 시제의 분석”, 「언어」, 5~1.
- 李南淳. (1981). “現代 國語의 時制와 相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6.
- 李承旭. (1958). “國語의 時制研究”, 「國語研究」, 6.
- 李庸周. (1983). “韓國語 動詞의 意味論의 分類와 ‘~는다/-는다’ 形의 意味에 關한 研究”, 「師大論叢」, 27,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 _____. (1984¹). “時間副詞와 動詞의 ‘~겠다’ 活用形이 나타내는 動作의 時間的 樣相”, 「師大論叢」, 28,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 _____. (1984²). “時間副詞+었다’ 가 나타내는 動作의 時間的 樣相”, 「師大論叢」, 29,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 李翊燮. (1979). “相對時制에 대하여”, 「白史 全光鏞博士 華甲紀念論叢」.
- 李翊燮·任洪杉. 1983, 「國語文法論」, 學文社.
- 이 정. (1978). “시제와 시상”, 「혁웅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 李鍾徹. (1964).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의 研究”, 「國語研究」, 12.
- _____. (1969). “바로매매김(直接時制) 이제이음(現在繼續에 對한 Aktionsart의 解釋—統 辭論의 同心構成에서 deep structure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42·43 합병호.
- 張奭鎮. (1973). “時相의 樣相 ‘계속’ ‘완료’의 生成의 考察”, 「語學研究」, 9~2.
- 趙恒瑾. (1980). “國語動詞의 時制研究”, 「忠北大學校 論文集」, 4.

崔鉉培. (1978). 「우리말본」. 정음사.

Lee, Chung-min. (1973). "The Korean Modality in the Speech Act", [*Papers in Linguistics*], University of Michigan. 1~2.

Lee, Hong Bae.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범한서적주식회사.

Résumé

ANALYSE SÉMANTIQUE DE 'V-는다', 'V-었다', 'V-겠다'

Yong Joo Lee

A la suite des observations consécutives portées sur la catégorie temporelle à qui appartiennent le référent des formes "V-ninta(V-는다)", "V-ötta(V-었다)", "V-kétta(V-겠다)" du verbe coréen avant, pendant et après l'énoncé, la conclusion s'est faite ainsi:

1. Nous ne pouvons pas attribuer la catégorie temporelle au verbe. La catégorie temporelle d'un référent n'est pas marquée par le verbe
2. Le radical d'un verbe désigne un référent et les formes "V-ötta(V-었다)", "V-ninta(V-는다)", "V-kétta(V-겠다)" représentent une attitudes psychologique de l'énonciateur
 - a. "V-ötta(V-었다)" marque la représentation de l'énonciateur pour qui le référent est jugé comme le fait accoupli.
 - b. "V-ninta (V-는다)" marque le jugement de l'énonciateur sur le référent qui se fait au moment ou après l'énoncé
 - c. "V-kétta(V-겠다)" marque, au cas ou le sujet est la lère personne, le jugement sur l'intention, la décision ou la possibilité, et, dans le cas pour la 2ème personne ou la 3ème personne, il représente une sorte de supposition de l'énonciateur.
3. C'est donc l'adverbe temporel qui marque la catégorie temporelle du référent d'un verbe.